

신앙의 예배
전국일동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중헌

회개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복음교회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8 중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홍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제의 수요일(6일)부터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실시

사순절(2. 6.~3. 22.)은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은총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감움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깨끗케 하신다(벧전 4:1) 이제 '제의 수요일'(6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며, 당일 새벽부터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2. 6.~3. 16.)가 주력교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제의 수요일'은 회개의 날입니다. 머리에 제(災)를 뿌리며 세속에 물들었던 몸과 마음을 씻음으로 사순절을 시작해야 됩니다.(골 4:2) 따라서 중헌의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새벽기도회(04:50~05:30)에 모두 나와서 말씀과 기도(담전 4:5)로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주력교구 및 좌석안내는 본지 8면 참조

복음으로 화합하는 설날

이번 주 목요일은 설날입니다. 설날을 전후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귀향이 시작됩니다. 평안한 귀향길이 되시고, 오랜만에 회개 가족과 복음으로 화합하는 시간이 되도록 매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요일 5:21) 불필요한 오락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골 2:2) 특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설날 연휴의 시작인 만큼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시기 바랍니다.(갈 5:24)

*설날기침에 모범은 본지 4면 참조

2008년 1차 청지기훈련

주제 :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세기 15:1)

일시 : 2월 22일(금), 저녁 7시

강사 : 김성관 위임목사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물과 바람

지금까지 왜 거듭나야 하는지, 또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성령을 통한 거듭남을 말씀하셨다.(요 3:5~8) 거듭남은 하늘에서부터 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일이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요 1:12~13)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성령강림의 가장 위대한 결과는 방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언은 성령님의 부수적인 사역이다. 성령강림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결과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졌다는 것이다.(행 2:40~41,47)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행전에서 방언에 관하여는 두 번 나타난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 받는 것에 관하여는 계속 쓰여지고 있다.(요 16:8)

물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말씀하셨다.(요 3:5) 물로 거듭나야 함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어떤 이들은 물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요 7:37~39) 새로 태어나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탄생을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사 119:50; 약 1:18; 벧전 1:23) 성경 안에서 물이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들 때에야 비로소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탄생을 가져다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행 5:26)

바람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은 '바람'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셨다.(요 3:8) 이는 분명히 성령님의 능력과 독점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성경에는 그가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누구도 뿌리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역사하신다.(행 2:2~4) 인간이 만든 종교의 힘,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충격적이다. 인간 자신의 선함과 선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야말로 마귀가 우리에게 띄어 준 가장 큰 환상이고 기만이다.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성취해 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미련함이다. 한 영혼이 거듭남에 있어서 성령님은 주권자이시

다. 이 말씀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이 나약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소망은 없으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용기를 준다. 하나님이 곧 구원을 이루시는 자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람은 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믿고 의지하라!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겠다!"

성령강림 이제 하나님이 물과 바람, 말씀과 성령을 거듭남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살펴보자. 참으로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권능이 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에 하나님은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행 2:9~12)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온다고 말한다.(롬 10:17) 그들이 듣는 소리, 말씀은 아무런 뜻이 없이 들릴지라도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선포하는 것이다.(행 2:5~6) 성령님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에 각 사람의 언어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에 외친 베드로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행 2:16),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일들(행 2:22~24), 인간의 죄와 죄값(행 2:23,27), 회개로의 부르심(행 2:38)이 들어 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이적과 기사를 바라보았던 사람들 중에는 진지하게 묻는 자들과(행 2:12),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행 2:13)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파될 때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그들은 성령님이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회개로 받아들이었다.(행 2:37,41)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본다. 물과 바람, 말씀과 성령님만이 죄인을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하신다. 니고데모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3천 명의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체험되었다. "늘었으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질문이 진실로 어처구니없는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가? 이 질문의 대답은 오직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니고데모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극히 내려지고 있다. 아멘.

UNDER GOD'S POWER

⁽³⁾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according to His great mercy has caused us to b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⁴⁾ to obtain an inheritance which is imperishable and undefiled and will not fade away, reserved in heaven for you, ⁽⁵⁾ who are protected by the power of God through faith for a salvation ready to be revealed in the last time.

(1 Peter 1:3~5)

Under God's power believers receive all the great blessings mentioned in today's bible verses. When you cling to Jesus Christ in faith, you ar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All humans are born with dead hope. No one has any chance to reach heaven under their power. People go about life with hopes and dreams, and through their own hard work, effort, and disciplines achieve certain outcomes. None, not one, of these outcomes leads to salvation. Some people actually think that if they are just a good person and go to church, pray regularly, help other people, or give money to the need that this will help them get into heaven. Not true! One of the great assurances of the Christian faith is the knowledge that we do not have to depend on our strength alone. Every Christian confesses this truth, but few really believe it. Too many of today's believers still think that their salvation has something to do with their own efforts. You cannot depend on your own strength to walk the narrow path that leads to eternal life. If you really believe this and truly confess that you cannot do it on your own, you will have great assurance. You need the great power of God to guard, protect, and shield you in His life.

Why do you need to live under God's power? The biggest reason is sin. Sin is a powerful enemy. Everybody thinks that they can overcome sin by self discipline, but look at our past record. Adam ate the forbidden fruit, Cain killed his brother, Abraham lied about his wife, Jacob cheated his brother, David committed adultery, the Israelites continually worshipped idols, Judas betrayed Jesus. Peter denied Jesus three times, and Ananias and Sapphira lied to the Holy Spirit. Clearly, sin is a big problem. The Bible tells us, "So then as through one transgression there resulted condemnation to all men, even so through one act of righteousness there resulted justification of life to all men." (Rom. 5:18) Beginning with Adam, all humans, not some, are affected by sin. It leads every human being to death. Like leprosy, it spreads and infects the whole body. Real Christians need to confess that they cannot rely on themselves. There is no hope on your own because sin is too great an enemy. Sin condemns all people, it is a wide road that leads straight down to destruction, but there is a living hope. Through your faith in Jesus Christ you ar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Why do you need to live under God's power? He promises and provides help. Humans need God's assistance. Ephesians 6:11 says,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you will be able to stand firm against the schemes of the devil." The devil is conspiring against you right now. Your own defensive weapons cannot defeat him or sin. God created something special for you to wear, and you need to use it.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put it on. Do you know all that you are up against? Ephesians 6:12 says,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powers, against the world forces of this darkness,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 Under the power of God you are protected. You get under the power of God through your faith. You have to live under the power of God. No Christian can live on this earth through their own strength because they cannot handle the power of sin. Sin overpowers humans; but God controls sin. He gave His Son for just this purpose. Jesus has the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Mk. 2:10) He is the only One who can control sin. If you go to Him, your sin problem is solved. Not only that, but in going to Jesus you become a child of God,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Jn. 1:12) Paul confessed, "but to those who are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1 Cor. 1:24) Jesus is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If you go to Him, you have everything you need. You cannot fail because His power is too wonderful, "Now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and to make you stand in the presence of His glory blameless with great joy, to the only God our Savior,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be glory, majesty, dominion and authority, before all time and now and forever. Amen." (Jude 24~25) Jesus continually intercedes on your behalf. (Jn. 17:11) He is the only One who can bring you to heaven, "Now may the God of peace Himself sanctify you entirely; and may your spirit and soul and body be preserved complete, without blame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Faithful is He who calls you, and He also will bring it to pass" (1 Thes. 5:23~24)

Why do you need to live under God's power? Truthfully, it is the only way to victory. If you rely on yourself, you will end up in hell. If you rely on God's power, you will end up in heaven. You rely on His power through faith, "For whatever is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our faith. Who is the one who overcomes the world, but h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1 Jn. 5:4~5) The way of victory is to believe in Jesus Christ by faith. 1 Corinthians 15:57 says, "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Jesus is the answer. You should not ignore this truth. So many of today's churches ignore Jesus and glorify other things or other people. It is shameful. It is wrong. It is dangerous. Like Paul, you need to have this attitude in yourself,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 (Gal. 2:20) Is this your testimony?

My dear friend, do you realize how great and amazing it is living under the power of God? The world is a sinful and dangerous place. To be protected by the power of God is a tremendous benefit of the Christian faith. Please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I tell you now, it is the only way to victory. 🙏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편 115:9)

하나님은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당신의 아들의 피 값으로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성령으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으로 경외해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삶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할 때조차도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마 25:34)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닌 능력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계를 넘는 그 어떤 일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불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줄 끝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위대위대하신, 언제나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느끼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힘을 공급해 주시게 그곳에 계십니다. 그

설날가정에배

◆ 찬 송	 267장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 말씀봉독	 시편 115:9	 인 도 자
◆ 말씀선교	 여호와를 의지하라	 인 도 자
◆ 통성기도		 다 같 이
◆ 찬 송	 354장	 다 같 이
◆ 주기도문		 다 같 이

분은 언제나 여러분이 지치고, 불안해 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유혹에 빠지고, 낙심되고, 희망을 거의 포기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앞에 놓인 사탄의 방해와 핍박에 대해 아십니다. 참으로 복된 소식은 만일 여러분이 허락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 대신에 당신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의 방패가 그 어떤 모든 것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위험, 칼 등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낼 수 없습니다. (롬 8:38~39)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시 27:14 ; 사 40:31)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감내하셨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이겨 내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당하셨던 고통과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우리 능력의 원천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시 115:9) 아멘.

(임성원 위임목사)

마가복음 강해 18

* 매주 월요일경기도교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금식을 놓고 다툼이 일어나다

(2:18~22)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한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마 2:18) 이 질문에 예수님은 혼인장·생배회 조카 비유를 통하여 금식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셨다.(마 2:19~21)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에 대한 질문의 답은 이것이다.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마 2:22)

금식은 율법이 정한 매우 중요한 규례였다.(레 16:29) 특히 온 이스라엘에게 명한 금식은 하루의 금식이었다. 그 하루는 죄와 영혼의 고통에서 깨끗함을 얻는 날로 정한 구원의 날이었다. 이 맥락으로 보면 금식은 구속의 준비로 회개의 행동이었다.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와 범죠했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삼하 12:16~17) 에스라도 그의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다.(스 8:21,23) 그런데 금식의 횟수가 포로 이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금기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일 주일에 두 번 금식(눅 18:12)했으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마 3:7~9 ; 눅 7:33) 이것은 율법이 정한 규례가 아닌 자발적인 행위였다. 따라서 이들이 지키고 있는 금식은 자신들이 만든 종교와 전통이지 결코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금식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눅 7:5)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금식을 자신의 육구 충족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락시켰다.(눅 8:19) 구속의 준비로서의 참 회개는 사라지고 외식과 자신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금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비난하였다. 마한가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말씀을 왜곡하여 수많은 전통과 법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낡은 전통은 제거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외식적인 종교인들과 정반대의 여인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이다. "과부가 되고 팔십사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아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눅 2:37)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였던 안나의 심정을 가지고 금식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외식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마 25:1) 자신이 가진 그 무엇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고후 11:2)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단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계 22:17) 내가 만든 신앙의 전통을 버리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핍박은 계속될 것이다.(막 13:6) "너 근심 걱정 말라라. 주 너를 지키리."(찬 382장) 불필요한 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참 생명의 예수님이 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 아멘.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번 선교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팀은 출발 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과승하셨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속에서 위임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선교를 마치고 뒤돌아볼 때 나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주님의 흔적이 보일 수 있는 선교를 하세요." 이 말씀대로 이번 선교는,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는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선교지에 도착하니 12월인데도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우리를 맞았다. 우리는 더위도 잊은 채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 들판에서 아기를 업고 힘겹게 추구하고 있는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고, 학교길의 학생들과 병상의 할머니를 찾아, 할머니, 보이는 사랑과 보이는 집마다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선교 마지막 날, 자전거를 타고 가는 20대 초반의 여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별 반응이 없이 지나가려 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서 이곳까지 왔어요."라고 힘차게 말하자 그녀는 놀란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더욱 힘차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 십자가, 구원, 천국……." 그녀의 눈은 커졌고 나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지금 나는 당신에게 이 땅의 보물을 주진 못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녀는 외곽 소리지며 흐느끼고 울었다. "네, 믿습니다!" 울음으로 그녀는 대답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라 그려졌다.

김광기(집사, 5교구)

새벽 2시경에 사역지의 숙소에 도착하여 예배를 드리고, 새벽경전회를 가진 다음 시작된 사역은 이제까지의 저의 열려를 불식시킨 은총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준비해 주시는 영혼들이 각각각색의 모습으로 언제나 새롭게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어떠한 방법의 구상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어눌한 언어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확실하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경가회 시간에는 감사의 기도만을 반복하였습니다.

사역 셋째 날, 하루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무렵 성과 같은 큰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는 협상국은 50대 중후반의 우람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고 싶었습니다. 성 같은 집에는 50대 중후반의 남자라면 분명 공산당 간부일 테고, 그의 인상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을 것 같았습니다. 순간 '오늘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저 한 사람 때문에 괜히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 옆에 있던 집사님이 그를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토록 사색해 보던 그의 얼굴이 밝아졌고, 영접기도를 드릴 때에는 가슴에 숨뚜껑 같은 오손을 열고 기도를 따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육신의 눈과 이성의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뜻과 갈지 아니한가를 새삼 깨달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온전기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의 결단으로 불당 앞마당에 모여 있던 고등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복음을 받아들였던 일, 십자에는 경찰 간부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마침 별채 창고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여학생들에게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찬송을 부르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팀장님은 응접실로 들어가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오히려 경찰 간부를 설득시켜 마을에서 안

성령의 사역

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은총의 시간이었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팀장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즐거운 일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에서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연구(집사, 6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4일(월) - 2월 9일(토)	고등부 1팀	채홍표
2월 5일(화) - 2월 13일(수)	24교구 3지역	한인교
2월 8일(금) - 2월 16일(토)	대학부 2팀	김영숙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6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28일(월) - 2월 5일(화)	19교구 4지역	최진성
2월 1일(금) - 2월 9일(토)	중등부 1팀	윤병식
2월 1일(금) - 2월 9일(토)	청년1부 1팀	윤해군
2월 1일(금) - 2월 9일(토)	청년1부 2팀	이신동
2월 1일(금) - 2월 9일(토)	청년2부 1팀	이용수
2월 2일(토) - 2월 9일(토)	합동루터청년대1팀	이상범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28일(월) - 2월 2일(토)	고등부 2팀	홍순길

거듭남의 은총으로 풍성한 제2교육위원회



김경호(의장, 제2교육위원장)

제2교육위원회는 고등부, 대학부, 청년1부, 청년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세대와 교회를 이끌고 갈 일꾼인 동시에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갈 중진들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때는 세상의 유혹과 시속,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환국과 열려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기에 제2교육위원회 소속 교회학교는 이들이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성령을 의지하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2교육위원회가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은 이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요 3:3) 이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힘과 의지와 열기가 가장 강한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재자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로 1:16)임을 확신하여 보혈의 능력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매질하고 예배시간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드리는 주일5부예배와 금요찬양회를 통해서 은총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새벽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깨달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강단에서 선포된 위임목사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갈 2:20)이 되도록 기도하며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도전해 오는 세속의 가치와 자기의 꿈과 의를 부추기는 세상의 방법론에 담긴 사탄의 속임수를 밝히 드러내며 오직 십자가 만을 든든히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헌신된 팀장과 조장님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조별성경공부 시간을 통해 매주 위임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속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총련의 젊은이들이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그 곳을 변화시키는 자로 세워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2교육위원회는 총련의 젊은이들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심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인이 되었듯이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2교육위원회 산하 교육부서에서 매년 단기선교에 많은 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교구팀과 연합하여 훈련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중인이 되는 것'(행 1:8)에 자신의 젊음을 드리고 생명의 시간과 물질들을 드려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같은 젊은이들이여! '겉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설 수 있는 예수님게로 모두 오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청초주를 기억하라"(전 12:1)

가장 귀한 찬양의 옷

나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6남매의 맏딸로 태어났다. 열 살 때 2년 동안 뇌막염을 앓아 반신불수로 말도 못하고, 학교도 2년 이상 다니질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병 고침은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완전하지 못하였다.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학습능력이 떨어져 나는 학교에서 늘 뒤처졌다. 이런 나를 형제들은 업신여겼고, 어머니마저 함부로 대하였다. 모두들 자는 추운 한겨울 밤에 나는 물지게를 지고 물을 길어와 큰 독에 가득 채우는 벌을 받기도 했다. 어린 나이에 아픈 가슴을 안고 차가운 마루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공부를 못해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하면서 울며 기도하곤 했다.

이후에 나는 신의주제2교회에서 찬양대로 봉사하며 늘 찬양의 기쁨을 맛보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시아버님은 공산 치하에서 순교하실 정도로 믿음이 굳건하셨고, 남편과 나는 6.25 전쟁이 발발하기 두 해 전에 시아버님의 명령으로 믿음의 자유를 찾아 월남하였고, 1949년에 시아버님은 마지막 편지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골로새서 2:5~7 말씀으로 당부하셨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대로 남편과 나, 우리 가정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세월이 흘러 지난 2007년 10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다. 늘 자상하던 남편이 떠난 뒤 나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왔다. 물론 천국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확신은 있지만 당장 내 옆에 없는 남편이 보고 싶고 외로웠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게 하셨다. 평상시에 남편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즐거워, 주 얼굴 비을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에서 나를 맞아 주실 예수님이 상상이 되어 나는 어느 새 기쁨으로 흥만해졌다. 이처럼 찬송의 은혜에 흠뻑 젖어 살던 나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

백 년을 넘긴 내게 주님은 찬양의 옷을 입혀 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루살렘 찬양대로 세워 주신 것이다. 얼마나 귀한 찬양의 옷인가! 스무 살 처녀 때 찬양대에 선 이후 62년 만에 다시 찬양대에 선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금요찬양집회 때마다 예루살렘 찬양대에 가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인지 모른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처음으로 찬양 드릴 때 시편 147편 1~2절 말씀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행하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알 수 없으나 나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줄 알 것입니다.

김순복(은퇴교사, 예루살렘 찬양대)

예수님 때문에 바쁩니다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은혜를 받은 지도 벌써 열 년이 다 되어갑니다. 돌아보면 내가 어렸을 적에 ‘복음’이 생기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믿는 자’라고 자부하며, 믿음의 가장이라고 내세웠지만 세상과 같이 호흡하며 아무 문제없이 지내 온 세월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대접받고 나이 많도록 아무 탈 없이 지냈은 건강, 아주 조금이지만 남보다 더 가진 달란트, 반듯하게 잘 자란 아이들, 이 모든 것들로 세상은 참 즐거운 곳이었습니. 주일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냥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했고,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 앞에서는 모든 경건이 나에게만 있는 척 행동하며 부러움을 자아냈습니다. 자랑하며 살 조건들이 많아 이렇게 누리며 사는 것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고 축복인 줄 알았습니.

위임목사님이 오신 뒤,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저를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복음대로라면 오랜 세월 동안 흐트러뜨릴 수 없이 쌓아놓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목사님이 외치는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하고 쉬운 것 같은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어렵게 들렸습니. 이 모든 것이 바뀌고 마음을 담아 내야 싶었지만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자리잡기 시작하였습니. ‘아, 이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내가 가진 기쁨과 즐거움과 자랑, 이 모든 것이 가짜였구나. 내가 했던 일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구나.’ 나의 신앙생활들을 뒤돌아보며 보혈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겠다고 다짐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이미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단 팔손을 훌쩍 넘겨버린 패였습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오라는 곳이 없는 그런 나이었습니.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저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 바로 예루살렘 찬양대입니다. 이제 한 주간 내내 찬양가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 그저 약보란 보인던 찬양가사가 내 마음속으로 들러오기 시작했습니. 비로소 주님께 찬양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고, 그렇게 외워지지 않던 가사가 마음속에 들어와 이미 내 것이 되어 훨씬 쉽게 암송할 수 있게 된 것도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한 주님의 은총이었습니. 세상 일 때문에 바빴던 품은 시절의 그때처럼 지금도 많이 바쁘습니.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때문습니. 이것이 정말 감사습니. 겨울이면 몇 차례씩 걸었던 경기도 이현 잘 찾았으니 알습니. 수요예배와 금요찬양집회 참석으로 한 주일이 분주하기 때문에 예전같이 아를 시간이 없기 때문인도 합니. 무엇보다도 아내와 함께 찬양대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저를 불러 주셔서 찬양의 도구로 써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드릴 뿐습니.

세상일에 빠져 허송 세월을 보냈던 지난 일들이 후회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후에도 마음속 깊이 지난 날의 어리석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십자가의 은혜입니.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찬양대를 섬기고 있습니. 이제 나의 인생 전부를 주님을 위해 찬양하며 지낼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리자 갈아서 회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령을 간구하오라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대상 29:15~16)

장재복(은퇴교사, 예루살렘 찬양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실로 감격스러웠. 금요찬양집회에 가는 것이 가끔은 힘이 되었지만 말씀과 찬양에 은혜를 받고 나면 나 같은 죄인인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부끄러워 감히 소리조차 낼 수가 없어서 날 불래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하지만 그런 은혜 가운데서도 교회 일 이 더욱 많이 주어질수록 힘이 들었다.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싫었다. 얼마로서 두 아이를 잘 키워주고 못하면서 교회에서 하루종일 보낸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특히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나의 마음은 더 힘들고 지쳤다. 바로 ‘나의 노력’으로 주님께 더 잘 해 보려고 했던 것이다.

이처럼 혼란스러울 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니 감사가 자절로 나왔다. 힘들 때에도 불평보다 감사하게 되었고,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감사를 입으로 외쳤다. 감사의 고백까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했던 내게 예수님은 “너는 아무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나였으나 아무 조건 없이 내려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주님의 일이 부담스럽지 않다. 교회와 집이 먼 것도, 다양한 여건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음도 감사가 나올 뿐이다. 교무직으로 시에 찬양을 인도하는 일이 정말로 좋다. 나는 주님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케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드리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과 이름을 항상 드릴 수 있기를 원함니다.” 아멘.

신성미(집사, 21교구)

♥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이십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갖듯이 받은 예수님의 은혜에 많았어 감사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내 중심적이었던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법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개하며 믿음을 실천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동은)

♥ 예수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길을 항상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주시고 저에게 항상 빛과 소금이 되어주십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요즘 교회생활을 하면서 온마음껏 마음과 몸이 은혜를 받고 죄 사함 받아 맑아지고 깨끗해졌음을 느낍니다. 항상 믿는 일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신동혁)

♥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인 됨을 알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회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통해 찬양, 말씀듣기, 청년부모임을 통한 교제, 그리고 위임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같이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공진주)

♥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구원에 주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못 박히셨고 그 물리신 보혈의 피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즐겁습니다. 특히 주변의 성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의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되었고, 긍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전영원)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서른 해를 살아왔다. 그간 기쁜 일도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뒤돌아보면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의 시간 역시 적지않은 않았던 것이 그다지 평탄하고 평안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다. 군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집을 잃었던 아픔도 있었고, 평생을 노레할 줄 알았던 목소리를 잃어버린 일도 있었다. 그래서 원래 꿈꾸고 바래왔던 일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겪어야 했다. 그리고 보니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겪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창세기 43장**을 통해 내가 진정 사모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알게 하셨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준한 죄 짓고 보노."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여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지 조금은 깨달은 나의 영혼에,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준한 죄 짓을 벗겨 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알게 하셨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도 나를 불러 주신 주님께 눈물과 간절함으로 찬양했던 기억이 난다. 목이 메었지만 찬양을 불렀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목메어 부르는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함께하신 그 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맛보게 하셨다. 그렇게 이 찬양을 통해 또 인생의 아픔을 통해 하늘나라는 내게 더욱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셨고, **"주의 얼굴 밝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 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라."** 란 가사를 고백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다시 찬양한다. 이 땅에서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늘 길을 걷게 하시고 죄악 된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내려놓을 때, 나에게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으며 그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를 내도 지고 갈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내 몸의 십자가를 지시므로 나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함께 주실 줄 함을 주시므로 주님이 예비하신 저 보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아직도 나에게는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 앞에는 고생과 수고함이 있음을 나는 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동행하셔서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신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예비된 천국을 소망하며 나의 걱정과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찬양하며 그 영원한 나라로 부르실 그 날까지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드린다. 지금도 고백한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 1:21)

이상훈(집사, 가브리엘 찬양대)

새가족양육부 1월 수료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 사랑입니다!



♥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저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평안함을 얻습니다. 이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 곁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와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지? 를 생각하며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조혜민)

♥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새가족양육부에서 차근차근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이곳에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막연했던 불안감도 사라지고 결단기적의 것이지 아닌 이제는 진심으로 주님에 대해 알고 성령이 가질 원하시는 마음이 제 마음 속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영경)

♥ 예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천동하신 하나님과 외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저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 드릴 수 있어서 신앙생활이 항상 은혜롭습니다. 이제는 저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인희)

♥ 저에게 있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좋은 수식어라 다 붙여도 모자랄 만큼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습니다. 기도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껏 드리고 싶은 찬양을 목 놓아 부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베풀어 볼 수 있어서 저의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 행복합니다. (서진숙)

(편집국)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인도자
202	최선혜	8	장년1부	정윤순(24)
203	조동현	22	장년1부	김현하(10)
204	김시은	10	장년2부	서지화(24)
205	박숙현	19	장년1부	박숙현(24)
206	박연숙	12	장년2부	전순은(24)
207	심귀우	10	장년2부	허형철(24)
208	김완숙	25	에버다부	정영미(25)
209	장익일	12	장년3부	정형준(24)
210	안말라	25	장년2부	배지미(16)
211	이화지	25	장년2부	김보라(24)
212	서호우	25	외선부	보트르네(25)
213	이브레나	25	외선부	나영실(17)
214	박영호	25	에버다부	변창현(10)
215	홍사서	22	청년1부	지아연(24)
216	김영은	22	대학부	순은숙(8)
217	송이경	1	청년1부	조영희(4)
218	김민혜	12	청년1부	함지희(11)
219	박예슬	13	고등부	송은주(3)
220	김진현	17	청년1부	여국진(1)
221	서용현	17	청년2부	여국진(1)
222	홍채현	6	소년부	배영순(21)
223	홍보영	20	대학부	
224	김동호	8	청년1부	김종주(8)
225	송이경	24	청년1부	양승지(24)
226	손지민	16	청년1부	김순희(8)
227	서정실	5	청년2부	이연희(24)
228	김선혜	25	고등부	김보라(20)
229	최은진	2	고등부	박태준(2)
230	박옥자	2	소망부	박태준(2)
231	이정주	2	유치부	박태준(2)
232	남상학	16	청년2부	남형준(24)
233	김은혜	16	청년2부	백영희(24)
234	신말우	24	청년2부	고미숙(24)
235	송아영	9	중등3부	
236	최현미	9	중등3부	
237	허순은	6	청년2부	이호일(24)
238	이재정	2	청년1부	
239	이유희	6	청년1부	이광주(21)

※ 찬양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당기치 바랍니다.※

교회소식

모양

1. 안수집사 월례회
일시: 4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갈렐리홀

별 大

1. 김영희 은퇴권사(6교구 문정2구역) / 2월 1일 별세, 2월 1일 장례
2. 장태도 성도(이매강 은퇴권사의 남편, 3교구 까치구역) / 2월 1일 별세, 26일 장례
3. 이순환 은퇴집사(김중주 은퇴권사의 남편, 이상현 집사·이희경 집사의 부친, 김기환 집사의 장인, 2교구 약곡구역) / 2월 1일 별세, 30일 장례
4. 김태로 티교집사(사탕한 집사의 모친, 이정환 권사의 외모, 19교구 봉곡1구역) / 2월 1일 별세, 31일 장례

총력 교회주변 전도

일 시 : 여천도회 2월 13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2월 16일(토) 14:00

장 소 : 여천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지회-301호 2지회-307호
3지회-401호 4지회-407호

장년 1부 겨울수련회

주 제 : 두려워하지 말라!(창 15:1)
일 시 : 2.16.(토) 10:00~16:30
장 소 : 제1교육관 207호

충현복지관 직원모집

1. 모집부문 작업치료사 (강제계약직)
2. 지원자격 세계교인으로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작업치료학과 졸업예정자(강제합참치료, 경찰학 우대)
3. 채용방법 서류심사 후 면접
4. 채용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복본, 주민등록등본, 당초복 추천서(제고인)
5. 모집기간 2008년 2월 12일(월) 17:00까지
6. 서류제출처 강남구 역삼동 665-1 흥천교회 사무국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좌상



사수절 특별새벽기도회 주력교구 2월 6일(수) ~ 3월 16일(주일)

날	주요국	날	주요국	날	주요국
2월 6일(수)	1.7.13,1927	2월 20일(수)	5.11.7,23,27	3월 5일(수)	3.5.15,21,27
2월 7일(목)	2.8.14,20,27	2월 21일(목)	6.12.18,24,27	3월 6일(목)	4.10.16,22,27
2월 8일(금)	3.5.15,21,27	2월 22일(금)	1.7.13,19,27	3월 7일(금)	5.11.7,23,27
2월 10일(일)	휴일	2월 24일(일)	휴일	3월 9일(일)	휴일
2월 11일(월)	4.10.16,22,27	2월 25일(월)	2.8.14,20,27	3월 10일(월)	6.12.18,24,27
2월 12일(화)	5.11.7,23,27	2월 26일(화)	3.9.15,21,27	3월 11일(화)	1.7.13,19,27
2월 13일(수)	6.12.18,24,27	2월 27일(수)	4.10.16,22,27	3월 12일(수)	2.4.14,20,27
2월 14일(목)	1.7.13,19,27	2월 28일(목)	5.11.7,23,27	3월 13일(목)	3.5.15,21,27
2월 15일(금)	2.8.14,20,27	2월 29일(금)	6.12.18,24,27	3월 14일(금)	6.12.18,24,27
2월 16일(일)	휴일	3월 1일(일)	휴일	3월 15일(토)	휴일
2월 17일(월)	휴일	3월 2일(월)	휴일	3월 16일(일)	휴일
2월 18일(화)	3.9.15,21,27	3월 3일(화)	1.7.13,19,27		
2월 19일(수)	4.10.16,22,27	3월 4일(수)	2.8.14,20,27		

2008년도 제1차 학습 및 세례식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션자, 개회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션자	장소
2월 10일 (다름없음)	1시 15:00~15:50	성경 개요 (출수일 목사)	교육관 303호	구원론 (유재진 목사)	교육관 304호		
	2시 16:00~16:50	기독교 (유현진 목사)	교육관 302호	(양태진 목사)	교육관 304호		
2월 17일 (주일)	1시 15:00~15:50	기독교 개요 (황진섭 목사)	교육관 303호	세례란? (김정우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반? (이재훈 목사)	교육관 301호
	2시 16:00~16:50	토 달	구교별 강소	토 달	구교별 강소		
2월 24일 (주일)	초청예배	성인 학습 세션자 (신앙개혁, 분당) 오후 4시 30분까지 선별 참여		유아 세션자	(오후 3시, 갈릴렙로) 오후 4시 30분까지 선별 참여		

새벽기도회 담당 (2/4~2/10)

		사순절 특별사막기도회							
		4 (월)	5 (화)	6 (수)	7 (목)	8 (금)	9 (토)	10 (주일)	
설교/지도자	김성관/정희길	윤수일/최태환	유재진/송영진	유재진/임재봉	유재진/구원식	황진성/홍순애	강명구/김인식		
성경 본문	막 3:13-19	월 3:1-5	사 51:1-13	사 58:1-12	고후 5:20-6:10	골 2:12-20	마 6:16-21		

예배 담당 (2/6~2/10)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2/6	수요 I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마 1:17)-김성관 목사	하종철	임태수	내 죄를 회개하고(호산나 찬양대)
2/6	수요 II	이 들들은 무슨 뜻이나 (누 4:1-14) 박용현 목사	김영권		심자가 곤넬 되어서(성모님 찬양대)
2/8	초교찬양	김성관 목사	유원철		예루살렘 찬양대 / 예루 살렘 / 바리새 오소리
2/10	주일 I	하나님의 능력이 아래에서 (렐린 1:3-5) 진성원 목사	양태선	이보신	복음 전 찬양대
2/10	주일 II	하나님의 능력이 아래에서 (렐린 1:3-5) 김희현 목사	김길경	이상혜	바벨론 외 / 소르노로 김소연(전일 독창가)
2/10	주일 III	하나님의 능력이 아래에서 (렐린 1:3-5) 김성관 목사	안국영	이근희	내 주님 오신다 외 / 소르노로 김소연(전일 독창가)
2/10	주일 IV	하나님의 능력이 아래에서 (렐린 1:3-5) 유성민 목사	황진성	윤석민	우리 주님 오신 그 오늘 외 / 바리새원 원자(바리새원 오케스트라)
2/10	주일 V	하나님의 능력이 아래에서 (렐린 1:3-5) 정경호 목사	이성진	정창수	외주자 치리회(바리새원 외 / 소르노로 안혜진 (바벨 찬양대원 유승호))
2/10	주일찬양	차유자라 되시는 예수님 (마 8:5-13) 김성관 목사	박성진	박복선	할렘루비 제2주요창상 / 바리새원 찬양대 5/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 당
금요일찬양예배	저녁 7:00	본 당
비버기대회	매년 12월 5일	본 당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1 오전 9:00 11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등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중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등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중등 2차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등 3차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호
대학부	(토) 09:20~2:00 (일) 09:20~2:00	제2교육관 4층 제2교육관 5층

기도원진희 안내 (☎ 031-766-5425)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점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 출발
금요일차	저녁 10:30	금요일양회포 부 후원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예배 부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 오후 11시에 드리는 주일 11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와도 동시에 합창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t. Larki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분	시 간	장 소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4부	오후 3:10	배 다 니 홀
강 부	오후 12:15	강 질 리 홀
강 부	오전 11:00	목 지 연 지하1층
다 부	오전 9:00(화성)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아 부	(화) 오전 9:00 오후 6:00 (수) 오전 6:30 저녁 9:00	선교관 1층
양육부	오후 12:15	배 다 니 홀
연원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제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북지관

섬 · 기 · 는 · 부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illegible]

교회 오시는 길

